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호스피스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번지 (우 : 136 -705)

HomePage : cancerweb.co.kr

Tel : 920 - 5202, 5850, 5977

Fax : 920 - 5204

설립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 호스피스회는 비종교적, 비영리적 단체로써 1994년 6월 23일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여 첫 모임을 가졌으며 그 후 일곱 차례에 걸쳐 준비 모임을 가진 후 1995년 4월 17일에 김 세민 교수님 외 27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 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초대 및 제 2대 회장으로 김 세민 교수님이 역임 하였으며, 제 3대 및 현 제 4대 회장으로는 강재성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목적

본 호스피스회는 호스피스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남아 있는 삶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키며 질적 간호를 향상시키고 환자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안위 도모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임종자를 지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즉, 호스피스는 그 자체에 희망과 확신이 있으므로 평화로운 죽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병원간호와 더불어 임종자의 가정간호를 통해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와 함께 임종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인 간호와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 운영

2002년 1월 현재 회원은 109명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사목자, 영양사, 의무기록사, 행정직, 임상교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호스피스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본 호스피스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총회 : 년 1회

- 월례 회의 : 월 1회 의사, 간호사, 약사등 병원 실무팀과 자원봉사자의 회의가 있습니다.

-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의 모임 :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자원봉사를 하면서 환자와의 접근법과 봉사자의 덕목등에 대한 대화를 자유롭게 가지며 좀더 나은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

- 암환자 및 보호자, 암에 관심이 있는 모든분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 대상 : 암환자 및 보호자, 관심있는 모든분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2시

◆ 장소 : 안암병원 8층 소회의실

◆ 강사 : 1,3주 - 암이란 무엇인가? ... 의사

암환자의 간호 ... 간호사

2,4주 - 항암제의 부작용 ... 약사

암환자의 식이요법...영양사
5주 - 암에 대한 특강

사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로 회원수 약 27명 (미용
봉사자 포함)입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
년 1회 3 - 5 월에 실시 하여 새로운 자원봉사자
를 모집 합니다.

- 팀장, 조장, 교육부장, 총무, 회계, 조정자, 일
반봉사자로 체계적인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화, 기도, 침상정리, 머리 감기기, 가정호스
피스, 사별간호, 장례식돕기, 보호자 돌보기,
미용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년 4회 분기별 실시하고 봉사자 워크샵 야유회
등 봉사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질적 향상에 노력
을 기울입니다.

- 자원 봉사 활동 :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 봉사자 모임과 활동

자원봉사자는 고려대학교 호스피스회의 자원봉

- 자원 봉사 현황 : 연간 봉사 관리 환자는 약
600 여명
봉사 횟수는 약 1500 여회
미용봉사는 약 500 여명

길
가
는
자
의
노
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면
이름없는 풀들은 바람에 지고
사랑을 원하는 자와
사랑을 잃을까 염려하는 자를
나는 보았네
잠들면서까지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자와
죽으면서도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자를
나는 보았네

길은 또다른 길로 이어지고
집을 떠나 그 길 위에 서면
바람이 또 내게 가르쳐 주었네
일갓으로 태어난 슬픔을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자와
이제 막 태어나는 자
삶의 의미를 묻는 자와
모든 의미를 놓아 버린 자를
나는 보았네

- 류시화 -

주님의 사랑을 펼칠 터

- 제1기 남원 의료원 호스피스 봉사단 발대식 -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1-2

Tel : 063 - 620 - 1375

지리산 자락 조용한 마을에 따스한 사랑의 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남원 의료원 강 충구 원장님의 배려로 가톨릭 원목실이 부설되면서 모든 게 조금은 비껴나고 소외된 듯한 이곳에도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남원 의료원 제 1기 호스피스 봉사단”이 지난 1월 18일(금) 오전 11시에 발대식과 미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호스피스의 전반적인 개요와 호스피스 대상자의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의 의식 고취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다시 2차 교육으로 남원 의료원의 각 병동을 돌며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임상 실습을 수간호사들에게 받았다.

또한 기본적인 예절, 안내 교육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며 1일 피정과 자신과 타인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MBTI(성격 유형검사)도 받았다.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나태하게 살았었기에 교육과 실습 기간동안 때로는 졸이 쑤시고 지각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 걱정에 마음은 공밭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직 한 마음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42명이 감격스러운 발대식을 하게 되었다.

이 날 발대식에서는 전주 교구 이 병호(빈첸시오) 주교님과 서 석희 홍보국장 신부님, 김 요안 신

부님, 김 정민 신부님, 김 진철 신부님, 장 상원 신부님, 인보성체 수도회 박 미카엘라 총장 수녀님을 모시고 200여명의 교우들과 환자들이 참석해 미사가 집전되었으며 남원시의 많은 각계 인사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였다.

강론 중에 주교님은 호스피스의 개념이 유래된 어원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유럽에는 호스피스들이 봉사 할 수 있는 시설이 30 -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이라고 지적 하시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호스피스들의 몫일 것이고 역할 소임을 잘 해내는 일”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내면을 치유해 주는 호스피스라면 더 바랄 것이 없으며, 남원 의료원이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료진과 호스피스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하느님께서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해 주셨다.

이어서 인보성체 수도회 정 진숙 (헬레나) 수녀님이 남원 의료원 호스피스가 발대식을 갖기까지 그 동안의 현황 보고를 해 주었고, 봉사자들 대표로 김 광자(도미니카) 자매님이 호스피스 교육을 마친 소감을 발표해 주었다.

일시 : 2002년 1월 18일(금) 오전 11:00
제1기 남원의료원 호스피스 봉사단 발대식
 주최 : 남원의료원 가톨릭 원목실



남원 의료원 강 충구 원장님의 축사에서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 오면서 지금은 보이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대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치료해 주는 봉사자들의 몫이 한 차원 높은 의술로 부각되고 있다”며 환자와 공감대(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재삼 강조하고 보람있는 일을 찾은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주교님과 남원 의료원 원장님으로부터 봉사자 전원에게 임명장과 배지가 수여되었고 봉사자들은 수여식을 마친 후 봉사자 십계명을 힘차게 다짐하며 선서를 마쳤다.

미사 후에 남원 의료원 강 충구 원장님의 축사에서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 오면서 지금은 보이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대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치료해 주는 봉사자들의 몫이 한 차원 높은 의술로 부각되고 있다”며 환자와 공감대(라포)를 형

성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재삼 강조하고 보람있는 일을 찾은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남원하면 먼저 떠올려질 춘향이와 남원 의료원 가톨릭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함께 떠올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서 봉사를 시작하고 끝마칠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성실한 삶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